

歐洲 通信機 業界의 新動向

歐洲의 通信機業界는 日本에 對항하기 爲해 業界再編成에 나서고 있다.

歐洲의 電氣電子 産業은 컴퓨터, 반도체 분야에서 美國과 日本에 뒤지고 있으나 通信機는 대등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美國과 日本에 비해 企業數가 많은데다 市場이 patchwork와 같이 細分化되어 있으며 게다가 通信自由化라는 시대의 흐름과 巨額의 資金을 요하는 digital 交換機의 개발이라는 技術革新의 파도까지 엄습, 「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危機感이 歐洲通信機 메이커가 再編成 움직임의 배경이 되고 있다.

1. 日本의 攻勢에 對抗

가. 提携相平選定이 苦悶

「歐洲聯合」이나 「歐美聯合」이나를 놓고 험릿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나라는 英國의 헬리콥터 메이커인 웨스트랜드社만이 아니다. 프랑스의 國營電機 메이커인 CGE(Company General

Electricity)그룹도 ATT(美電話電信會社)와 제휴할 것이나 歐洲企業과 제휴할 것인가를 놓고 기로에 서 있다. 当初에는 ATT와 제휴, 그룹의 國營通信 메이커인 CGCT(컴퍼니 제네럴 콘스트럭션 텔레포닉)가 ATT의 技術을 供與받아 digital 交換機를 제조한다는 案이 有力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와서 프랑스 정부가 歐美聯合에 반대했기 때문에 CGE는 다시 歐洲企業과 협상을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西獨의 綜合電機메이커인 시멘스와의 제휴가 가장 농후하지만 스웨덴의 通信機 메이커인 에릭슨과 英國의 대형 電機메이커인 GEC와도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프랑스 CGE가 정부의 반대를 받았기는 하나 歐洲聯合이나 歐美聯合이나를 두고 고심하는 데는 그런대로의 이유가 있다. 有力한 파트너의 候補로 오르고 있는 시멘스도 사실은 美國第2의 電信電話會社인 GTE와 提携交渉을 벌이고 있다. 또 歐洲최대의 電機메이커인 네델란드의 Philips는 ATT와 合作會社를 설립, Digital 交換機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美國 IBM이 이탈리아의 STET((國營電信電話會社)와 제휴하는 한편, 民營化한 英國의 BT(브리티시 텔레콤)는 캐나다의 有力通信機 메이커인 마이텔을 買收하는 등 大西洋을 걸친 聯合이 잇달아 結成되고 있다.

나. 歐洲內聯合, 活潑

이에 대해 民族資本끼리의 合體와 歐洲內에서의 國경을 초월한 聯合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프랑스의 CGE는 이미 82년에 같은 프랑스의 綜合電機 그룹인 톰슨 그룹과의 調整에 따라 國內通信機市場의 80%의 畵어를 차지하는 大 그룹을 形成하고 있다.

이번 歐洲나 歐美聯合이나의 문제는 이에도 불구하고 「國際競爭에 이기기 위해서는 아직도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며 提携의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한 試圖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에서도 國營通信機 메이커인 이탈리아 텔레트라가 작년 9월 합병하기로 합의, 이탈리아 시장에서 過半數의 畵어를 차지하는 體制를 확립했다.

나아가서 英國에서는 작년12월 GEC가 대형 通信機 메이커인 프레스의 株式公

開買入)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 두회사는 지금까지 공동으로 Digital 交換機「시스템-X」를 개발하는 등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GEC가 美·日과 다른 歐洲勢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휴라는 느슨한 관계로는 이겨나가지 못한다」고 판단, 株式買入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문제는 프레시측이 반발하고 있는 한편, 영국의 獨占, 合併委員會에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買收가 실현될 것인가는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영국시장의 통신기 메이커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와 더불어 1社가 70~80%나 되는 방대한 셰어를 占하는 독점체제를 갖추게 된다.

歐洲 有力通信機 메이커 (100만弗)

企業名(國名)	디 지 탈 交 換 機	그 룹 總 売 上 高
필립스(네덜란드)	E S S	19,900
시멘스(서독)	E W S D	17,500
GEC(영국)	시스템X	7,500
CIT알카텔(프랑스)	E 10 / M10	1,800
에릭슨(스웨덴)	A X E	3,700
프레시(영국)	시스템X	2,050
이탈텔(이탈리아)		100

다. 美國市場에서도 協力關係

그러나, 이들 각사의 움직임은 국내市場을 확립하는 것만이 아니다. 스웨덴의 에릭슨, 프레시, CGE 그룹의 CIT 알카텔 등 3社は 미국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상호 協力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CIT 알카텔, 이탈텔, 시멘스, 프레시 등 4社は 85년 1월에 이미 Digital 交換機의 개발을 위해 技術協力한다는 데 합의했다.

더우기 EC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레이스(歐洲高度通信研究開發計劃)에는 이들 주요 歐洲通信機 메이커 29社가 참가, Digital 交換機와 通信 統一基準 開發에 協力하며 이 레이스에는 美IBM의 歐洲子会社까지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歐洲通信機 業界의 再編成 行方は 「歐洲냐 歐美냐」라는 단순한 分割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기업이 複數의 기업과 그것도 歐美의 企業과 合徒連衡하고 있는 것이

다. 각 기업은 테마에 따라 시장에 따라 살아남기 위해 갖가지 現實的인 선택을 하고 있는듯이 보인다.

「歐洲냐 歐美냐」라는 教條的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政治家들 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떠한 선택방법을 취하든 이같은 再編成의 회오리 바람은 향후 1, 2년이 피크이며 歐洲通信業界가 淘汰되어 新秩序가 형성되는 것은 그다지 멀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 通信自由化가 拍車

「歐洲의 通信機업계중 살아남을 수 있는 메이커는 2, 3社에 불과하다고 영국의 証券중개업자인 P&D(필립 앤드 드루)는 작년 11월 調查報告書를 통해 발표했다. 歐洲에는 Digital交換機를 개발내지 排戰中에 있는 독립된 通信機 메이커는 10여개 가까이 있다. P&D의 예측대로 된다면 再編成은 劇的으로 진전되지 않을 수가 없다.

가. 生存企業은 2, 3社

P&D가 歐洲通信機 業계의 再編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歐洲市場이 미국에 비해 몹시 過當競争 狀態에 있기 때문이다. 歐洲의 通信機市場 규모는 전세계의 4분의1 정도로 서연간 150억~200억弗이며 여기서 10여개의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250억~300억弗로 歐洲보다 큰 시장이면서도 Digital交換機 생산업체는 단지 3社에 불과하다. 市場規模로 봐서 歐洲企業이 生存할 수 있는 여유는 불과 2, 3社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歐洲市場에 通信機 메이커가 이렇게 亂立하고 있는 것은 歐洲各國의 通信機事業은 PTT(郵電公社)가 獨占, 필요한 通信機器는 국내조달을 원칙으로 하여 각국내에 少數의 通信機 메이커를 溫存해 왔기 때문이다. 각국의 PTT는 서로 다른 규격을 채택하여 外部企業의 참가에 장벽을 만들어왔다.

또 海外市場에서는 植民地에 本國과 똑같은 規格의 通信시스템을 移植, 獨立後에도 輸出市場으로서 關係를 유지해 왔다. 歐洲가 일렉트로닉스 製品中 유일하게 通信機만이 貿易收支가

10억弗이라는 흑자를 내고 있는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그러나 각국의 保護主義 장벽이 최근들어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英國의 電氣通信公社 BT(브리티시 텔레콤)이 民營化, 通信機市場을 개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民營化, 市場開發의 움직임은 네덜란드, 에이레 등으로 飛火하고 있다. 아직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시장에서는 通信自由化에 대해 강력히 저항하고 있으나 이것은 時代의 흐름인 동시에 미국의 요구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며 결국 각국은 이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通信自由化가 진전되면 국내시장에만 의존해 온 通信機 메이커는 存立할 수가 없게 된다.

나. 強力한 라이벌 登場

나아가서 技術革新이 競爭條件을 크게 바꾸어 왔다. 현재 通信機 메이커가 勝負를 걸고 있는 것은 Digital PBX(構內交換機)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이지만 이 연구 개발에는 지금까지의 通信機 개발보다도 1자리수가 더 많은 5억~10억弗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먹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이의 販賣市場도 100억~150억弗이나 되는 규모라야 한다.

歐洲通信機 메이커의 1인당 研究開發費는 미국의 3분의 1 정도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적다. 이에 따라 Digital PBX 개발은 歐洲企業 1社만의 대응으로 성공하기 어려우며 市場도 獲得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 또 장래의 通信機事業은 컴퓨터와 通信의 結合體制가 요구된다. 특히 컴퓨터에 약한 歐洲企業이 단독으로 이 體制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우며 弱點을 보완하는 제휴내지 連合이 필요하게 된다.

새로운 강력한 라이벌의 登場도 기존 市場秩序를 무너뜨리고, 歐洲業界 再編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歐洲市場 開放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企業分割後 적극적인 海外進出을 시작한 ATT(美電話電信公社)와 通信分野의 진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IBM 등 미국의 2대 巨艦이다.

이미 양사는 歐洲에서 제휴, 買収의 손을 뻗

치고 있으며 歐洲業界 再編成의 하나의 核으로 등장할 정세에 있다. 또 民營化한 BT의 製造部門 진출은 通信機 메이커로서는 최대의 수요자가 變身하는 만큼 단순한 경쟁자의 출현에 그치지 않고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BT에 이어 第2, 第3의 PTT 메이커가 탄생, 경쟁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 시멘스는 安定

歐洲 通信機業界 再編成의 현재 초점이 되고 있는 點은 英國의 GEC와 프레시의 合併交渉行方이며 이어서 注目되고 있는 것이 스웨덴의 엘릭슨과 西獨 시멘스의 動向이라 할 수 있다. 엘릭슨은 스웨덴을 비롯하여 北歐에서 압도적인 勢를 차지, 지금까지 好業績을 자랑해 왔다.

그러나, 퍼스널 컴퓨터의 對美進出 실패 등으로 급격히 업적이 악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영국家電 메이커인 손 EMI와 미국의 허니웰 등과 제휴하고 있으나 비교적 독보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언제까지 獨步的으로 행동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本業인 通信機의 市場擴大와 研究開發力의 強化를 위해 새로운 유력 企業과의 제휴가 촉구되고 있다.

한편 서독의 시멘스는 지금까지 서독시장을 獨立해왔으나 그것이 미국이나 歐洲 메이커 등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多幸히도 시멘스의 業績은 85년 9월期의 純利益이 前期比 45% 증가로 회복, 地力을 발휘하고 있다. 이 힘으로 앞으로는 外敵의 侵入을 막고 攻勢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CGE와의 제휴교섭도 이 같은 움직임의 하나라 할 수가 있다.

歐洲企業으로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회사가 2, 3사라고 한다면 이는 어떤 회사일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메이커는 시멘스 정도라 할 수가 있다. 나머지 1개 내지 2개, 이 의자를 둘러싸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의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계속, 이에 ATT, IBM, ITT 등 美國企業과 BT 등 民營化한 歐洲의 PTT가 얹히고 섞여 歐洲通信機業界 再編成은 이런 복잡한 構圖속에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